

전북, 13년 연속 K리그1 개막전 무패 행진

대전 하나시티즌과 홈경기서 1-1 무승부 기록
전주에 2만4758명 구름관중 찾아… 흥행 기대

프로축구 K리그1(1부) 2024시즌 개막전에서 전북현대가 홈경기 13년 연속 개막전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전북은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경기에서 후반 40분에 터진 안현범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10분 만에 구백에게 선제골을 내줘 끌려갔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승점 1점 획득에 성공했다. 이로써 전북은 13년 연속(10승3무) 홈 개막전 무패를 이었다. 원정팀 대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반 10분 박진성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준범이 머리로 살짝 떨구자 구백이 잡아 침착하게 슈팅으로 연결, 전북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북이 매섭게 대응했지만 대전은

구백, 레안드로를 앞세워 효율적인 역습으로 전북을 위협했다. 전북은 후반 중반까지 끌려갔다. 지난해 17골(7도움)을 터뜨리며 대전의 공격을 이끌었던 티아고는 새롭게 전북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의 골문을 노렸지만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후반 40분 안현범이 해결했다. 송민규가 페널티박스에서 찔러준 패스를 동점골로 연결했다. 한편, 이날 전주에는 2만4,758명의 구름관중이 찾았다. 2018년 유료 관중 집계 시작 이후 홈 개막전 최다 관중이다. 지난 시즌 유료 관중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300만 관중과 평균 관중 1만 시대를 맞은 K리그는 공식 개막 전부터 많은 관중을 품으며 2년 연속 흥행을 기대하게 했다. /뉴시스



하나원큐 K리그 2024 전북현대모터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가 열린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녹색전사들이 3·1절을 맞아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34 월드컵 도전 사우디
공식 유치전 나서… 개최 유력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 도전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공식 유치전을 시작했다. 단독 후보로 사실상 개최가 유력하다. 사우디축구협회는 지난 2일(한국시간) 2034 월드컵 유치를 위한 공식 캠페인을 시작하며 대회 슬로건과 로고를 발표했다. 슬로건은 '함께 성장하는(GROWING TOGETHER)'이다. 로고는 개최 년도인 '34'를 리본 두 개로 형상화했다. 협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우디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빠르고, 흥미진진한 성장 이야기를 쓰고 있다"며 월드컵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단독 후보로 이변이 없는 한 개최가 유력하다. 개최 의지가 있는 유일한 국가지만 FIFA 규정에 따라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유치 희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인도네시아, 호주도 유치를 나서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가 유치전에서 빠지며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고, 이에 호주마저 개최 의지를 거둬들였다. 사우디가 개최하면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건 2022 카타르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무더운 날씨 때문에 11~12월에 개최됐는데, 2034년 대회 역시 겨울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시즌 중 득점할 때마다 30만원 적립”

신협 전북, 전북현대 등과 ‘평생 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과 전북현대모터스FC가 ‘평생 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2024시즌 K리그1 개막전 경기 과정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양준재 신협 전북협회장, 황민석 두손모아봉사단장, 강연수 신협중앙회 전북본부 본부장, 전북현대모터스FC 이도현 단장과 선수단이 참석했다. 전북신협을 대표하는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인 ‘평생 어부바 사랑의 골’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은 전북현대가 K리그 시즌 중 득점할 때마다 쌀 80kg(30만원)을 적립, 시즌이 종료된 후 사회봉사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현대 창립 30주년(1994년 창립)을 맞아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전북현대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일한 프로 스포츠 구단으로 K리그 9회 우승과 2017시즌부터 5시즌 연속으로 K리그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구단이다. 지난 10여 년간 평균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과 전북현대모터스FC가 ‘평생 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신협 전북본부 제공> 득점은 시즌당 62골에 달해 ‘평생 어부바 사랑의 골’로 한해 적립될 쌀은 약 5000kg로 예상된다. 신협 전북본부 측은 전했다. 강연수 본부장은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이 한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명문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여하는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신협의 가치를 ‘사랑의 골’로써 지역민에게 직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개인 최고점, 칭찬하고파”

피겨스케이팅 신지아, 세계주니어선수권 3년 연속 입상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차세대 간판 신지아(15·세화여고)가 개인 최고점에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신지아는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8.95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73.48점)과 합해 총점 212.43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개인 최고점을 경신한 신지아는 2022년 탈린 대회, 2023년 켈거리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다. 다만 라이벌 시마다 마오(일본·218.36점)에 밀려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8년 만에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였던 신지아



경기 후 신지아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프리스케이팅에서 마지막 순서로 출전하게 돼 조금 긴장이 됐지만,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지아는 이번 시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2위 이내로 입상했다. 두 차례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은메달을 땀다. 지난 1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지아는 “길었던 시즌의 마지막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다”면서 “이번 시즌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신지아는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고진영·최혜진, LPGA HSBC 월드챔피언십 3R 공동 5위

고진영(29)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공동 5위로 뛰어올랐다. 고진영은 지난 2일 싱가포르 센토사 GC 탄종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2개를 쳐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를 친 고진영은 공동 5위에 올라 대회 3연패이자 LPGA 투어 통산 1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5월 코그니트트 파운더스 컵 우승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정상에 오른다. 이날 3타를 줄인 최혜진(25)은 고진영과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